

제71차 가을세미나 및 정기이사회 개최

10. 14.~16. 제주 사인빌리조트

한국 가톨릭병원협회 제71차 이사회 겸 가을세미나가 2004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 사인빌리조트에서 열렸다. 가톨릭병원협회는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회원병원 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톨릭이념 및 의료경영과 관련한 내용을 주제로 정기 세미나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조직관리 및 창조경영'을 주제로 강연한 삼성경제연구소 강신장 상무 외에 5명의 전문가를 초빙, 의료경영과 관련한 관심 있는 내용의 특강, 화합의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세미나 일정 중에 병원별 평가준비 등이 겹쳐 참석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 산하 30여 개의 회원병원에서 190여 명의 간부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에 앞서 열린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정기이사회에서는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출범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승인 후 후속업무와 과제 협의, 협회 수익사업 추진 등의 주요의제를 가결시켰다. 가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① 지난 6월부터 가톨릭의료인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출범안이 한국천



주교중앙회 주교회에서 승인되어 협회 출범과 관련한 정관 제정과 심의 및 법무적인 검토, 법인화 업무 등의 후속업무와 가톨릭의료인(가톨릭병원협회, 가톨릭의사협회, 가톨릭간호사협회, 가톨릭약사회)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 계획 수립과 추진을 합의했고, ② 협회가 추진해 오고 있는 보험사업 건은 빠른 시일 내에 회원병원의 보험업무팀장 및 실무자 보험업무 워크숍 과정을 거친 후 신상품 공동개발을 추진기로 합의하였다. ③ 신용카드 VAN사업자 선정에 관해서는 후속업무를 조속히 추진하는 것에 합의하고 회원병원간에 상호 협조를 약속했다. ④ 협회의 정기총회는 2005년 2월 중에 실시하기로 하고 예산안, 사업계획안, 의료협회출범안 등의 의제를 심의할 계획이다. 🐦

Semin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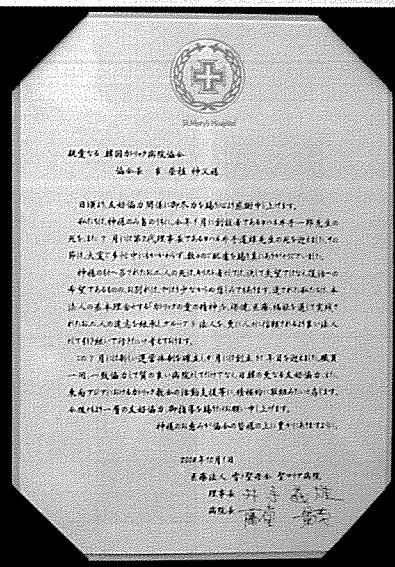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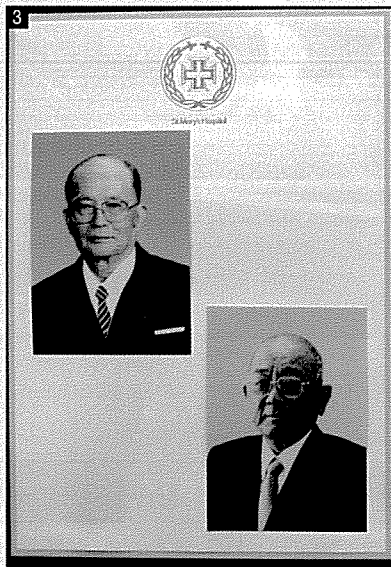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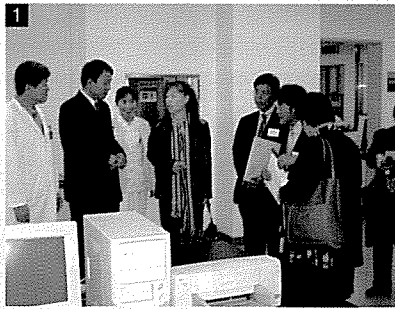
한일교류 日성마리아병원 직원 연수

정기행사인 금년도 한일운영위원회 및 교류사업은, 우리 한국 측의 방문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의료실무진의 성마리아병원 연수를 2회 실시한 반면, 일본 측의 방문은 우리 측에 비해 비교적 풍성했다. 주요 방문내역은 ① 6월, 한일운영위원회(서울)에 이데미찌오 이사장 외 4인 참석 ② 9월, 응급센터전문의 사마히로시 교수 외 2명 방문, 강남

성모 / 의정부성모병원의 응급센터 견학 ③ 10월, 이데미찌오 전임 이사장의 서거로 인해 새로 취임한 이데미시오 이사장 한국 방문 ④ 10월, 행정 / 의료실무 간부급 연수단 도츠카 팀장 외 3인, 강남성모, 성빈센트, 대전성모 등 3개 병원 견학 ⑤ 11월, 간호사 이시마루 외 1인, 강남성모 호스피스병동에서 한 달간의 연수 등이 있었다. 한국 측에서

는 이들 방문자에게 연수기간의 공식일정 외에 관광 등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한편 지난 6월, 한국을 방문한 이데미찌오 이사장이 7월에 유명을 달리해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하고자 한다(당시 협회 회장 최영식 신부 및 조규상 교수께서 방문, 회원을 대신하여 애도의 뜻을 전했다).

1. 행정 / 의료실무 간부급(4인) 성빈센트병원 연수 장면
2. 간호사 이시마루 외 1인, 강남성모 호스피스병동 연수 장면
3. 이데미시오 신임 이사장(상) / 이데미찌오 전임 이사장(하, 2004년 7월 타계) / 이데미시오 신임 이사장께서 협회 회장께 전달한 감사장 및 번역본



찬애하는 한국가톨릭병원협회
협회장 최영식 신부님

늘 우호 협력 관계에 힘을 다해 주심에 미음으로부터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느님의 뜻으로, 올해 1월에 창설자인 요하네 이데미찌오 선생의 죽음을, 그리고 7월에는 제2대 이사장인 요하네 이데미찌오 선생의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무척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많은 배려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곁으로 가신 두 분의 죽음은, 그리스도 자녀로서는 결코 실망이 아니라 부활에의 희망이나, 이별은 역시 적지 않은 슬픔입니다. 남겨진 저희들은 본 법인의 기본 이념이기도 한 '가톨릭의 사랑의 정신'을 보건, 의료, 복지를 통해 실천하신 두 분의 유지를 계승하고, 법인 그룹들을 더욱더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좋은 법인으로써 이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에는 새로운 운영 체제를 확립하였고, 9월에는 창립 5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직원 일동은 일치 협력하여 질 좋은 병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일의 우호 협력, 또한 동남아시아에서의 가톨릭교회의 활동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한층 깊은 우호 협력에 대한 지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협회의 여러분들께 풍성히 내리시길.....
2004년 10월 1일
의료법인 유카노 성모회 성마리아병원
이사장 井手 義雄
병원장 藤堂 景茂